

교회학교 위기, 가장 큰 책임은 누구? ‘부모’ 54.3%

다음세대 기독교교육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
“기독교 교육 나아갈 방향은?”

20일 오후 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통계분석에 근거한 기독교교육의 전망’이란 제목으로 다음세대 기독교교육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다음세대 및 기독교학원위원회가 주최한 이 자리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만식 교수, 기독교교육학과 박상진 교수와 함께 발제했다.

이만식 교수(장신대, 사회복지학과)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오늘날의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는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학령인구 감소의 요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함을 인정해야 한다”며 “과거 60~70년대의 교회성장 때 빠져나온 학생 수 대로 현실에 적용하기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회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한국 개신교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갤럽의 종교 통계조사를 인용했다.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에 따르면 개신교는 비종교인의 종교 호감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천주교가 18%인 것에 반해 개신교는 10%에 불과했다.

이어 성직자의 품위와 자격에 문제 있다는 응답 비율은 개신교의 경우 1984년 64%에서 2014년에는 85%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러한 요인들이 다음세대가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떠나는 원인이 되고, 교회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인 감소를 체험하게 되며 결국 이는 향후 한국교회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의 거시적 요인 이외에, 또 다른 원인으로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뽑았다. 그는 “한국교회의 가장 불행한 이중 구조는 담임목사는 성인목회만 담당하고, 교회학교 교육은 교육전도사에게 맡겨버리는 형태”라며 “단지 담임목사가 교회학교 학생 출석수를 확인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닌, 다음세대 목회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교회학교는 목회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며 “담임목사가 교회학교 사역을 핵심 사역으로 인식해, 이제 다음세대 목회의 한 복판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식 교수는 교회학교 직분자 754명을 대상으로 “교회학교 위기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이행했다. 이에 따르면 ‘교회 교육이 위기라면 누가 가장 큰 책임인가’의 질문(2가지) 선택하는 복수응답에 ‘부모의 책임’이 54.3%로 가장 높았고, 교회학교 담당자가 37.3%, 뒤이어 담임목사가 36.9% 순으로 조사됐다. 교회학교 감소의 모든 원인을 목회자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1994~2021년 장로교 통합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를 예측했다. 시계열 분석기법은 과거 통계치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그는 1994년부터 2014년 까지 장로교 통합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 추이를 파악하고 향후 2021년까지의 교회학교 학생 수를 예상했다. 이 예측에 의하면 2021년도 장로교 통합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는 339,482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1994년을 기준으로(654,417명) 48.1%가 감소하여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지고, 2012년(473,069명) 이후 10년 동안에 28.2%가 감소한 수치다.

노형구 기자



“자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18 생명사랑방길걷기 WALK IN(人) 서포터즈 별대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면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동성애 반대 못하는 ‘동성애 독재’에 반대”

예장통합 함해노해 제2종교개혁 세미나
고병선 박사와 조영길 변호사 발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가 도화선이었다. 당시 교황청은 엄청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교황은 교인들에게 현금을 받고 죄 사함을 파는 면죄부 판매를 시작했다. 이는 죄 사함의 근거를 예수의 십자가 보호이 아닌, 사람인 교황에 두는 것이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교황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루터는 비판 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불리우면서 “성경적 원리는 가정의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학교나 교회학교에 보내는 것은 일종의 위탁에 불과하고 책임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유아세례의 의미를 말하면서 “교회도 유아세례 받은 아이를 성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뿐 아니라 교회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교회는 가정에서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격려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교회와 가정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한 아이를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역설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아이의 성숙에 있어 가정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고 연합돼야 하는 게 박상진 교수의 주장이다.

지금도 이와 유사한 제2의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있다고 고형석 박사는 말한다.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해 동성애 대책위원회장을 맡고 있다. 20일 오후 2시부터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 1층 소강당에서 고형석 박사는 ‘동성애독재가 불러일으킨 제2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동성애 독재란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기치 하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별금지법안에 근거하여 형사 처벌하려는 현 시류를 빗댄 표현이다. 인권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반대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전제주의적 행태인 셈이다. 성경에 근거해 ‘동성애는 죄’라고 선언하는 교회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는 “종교개혁은 당시 교황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교회법과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 받는다는 성경법과의 충돌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국가 정치에 마강한 영향력을 끼쳤으므로 가톨릭의 교회법은 곧 국가법이었다는 게 그의 전언(傳言)이다. 결국 교황의 ‘자기의’와 예수의 ‘은혜’와의 충돌인 셈이다.

여기서 비롯된 종교개혁은 현재 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그는 “21세기 현재 ‘동성애는 죄’라는 성경법

과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국가법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며 “프린스頓 신학교, PCUSA 등 미국 장로교 교단도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국가법에 굽屈하여 동성애에 독재와의 싸움을 통해 개신교의 고질적 병폐인 교파분열을 치유하고 교회연합을 이루고 계신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면죄부 판매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듯이, 동성애 독재가 제 2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 독재와 싸우면서 성령에 의해 자연스럽게 연합이 이뤄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연합이라는 ‘교회 개혁을 성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그는 “종교개혁은 성령을 강조하지 않음으로 실천세계에 취약했지만, 제 2종교개혁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실천세계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역설적으로 현재 세계 최고의 자본가들 대부분은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며 또한 좌파 세력이다”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기독교는 폐려다임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언으로 그는 “기독교는 사람이 있는 곳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면서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를 아울러 복음을 전해야 하며, 또한 건강한자, 아픈 자, 폭력한 자, 무식한 자 등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가치관 안에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피조물 계시, 영의 계시 적극 실천하는 제2의 종교개혁의 삶”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종교 개혁이후로 개신교는 개혁을 명분으로 교파분열을 거듭했고, 심각한 교파 갈등으로 개신교 연합을 도모하던 세계교회협의회(WCC)도 결국 종교 다원주의의 허용하면서 원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전했다.

여기서 그는 “이러한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국가법에 의해 침식당할 위기에 처한

아이엔에스 조영길 변호사는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된 동성애 독재”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그는 “국가가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가치 하에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는 전제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동성애를 반대 했을 뿐인데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이 들어가고, 특정 의견을 표명했을 뿐인데 동성애자를 향해 혐오발언 했다고 처벌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동성애 독재이며 전제주의”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주의는 첫째 나치와 파시즘, 둘째 스탈린식 공산주의가 있으며, 반대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찬반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특정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아닌, 동성애에 대한 특정 의견 표명을 막는 것은 바로 동성애 독재”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서울대생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였는데,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추진 세력은 ‘혐오에는 관용이 없다’라며 일축했다”고 전하며, “혐오에는 관용이 없다”는 말은 ‘혐오에는 반드시 민사상처벌을 해야 한다는 독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인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인권 보호라는 테두리 안에서 숨겨져 있는 동성애 독재를 반대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 동성애 독재는 인권이라는 선한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체는 독재”라며 “동성애 합법화 운동은 동성애 합법화를 구축하려는 핵심 세력이 반드시 존재 한다”며 위장전술을 주장했다.

마무리로 그는 “우리의 전략은 다른 나라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따른 안 좋은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실(fact)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ADFD라는 웹사이트를 추천했는데, 이곳에는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지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공의'란 왕이 백성에게 베푸는 공의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의료음을 지키는 것, 즉 '신의'를 뜻합니다.

부자가 자기 대신 사람을 죽여 줄 청부살인업자는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에 대신 죽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제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의가 있는 친구 사이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된 친구로 하여금 죽기 전에 그의 흘러나온血液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해 주기 위해서 만약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가 사형을 당하게 될 것까지 기꺼이 감수하면서 대신 감옥에 들어가 주는 친구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강쾌 세계에서도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는 말은 흔히 합니다.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같은 파끼리의 의리를 지키는 데에 목숨을 내걸고 동료였다가 그 의리를 배반하는 자를 원수보다도 훨씬 더 미워합니다.

그런 불법적 조작자 그렇게 의리 하나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하물며 교회 안에서 한 주님을 모시는 성도 사이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 신자로서의 신의를 두텁게 쌓아 가는 교회 - 이런 교회를 흔들어 넓어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일단 예수님을 믿는 신앙 하나가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따라 와야 할 신자로서의 첫 번째 자질이 곧 '신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능력은 있어도 의리를 지키지 않는 교인은 결국 교회의 시험거리요 때로는 배신자까지도 될 수 있지만, 능력은 부족해도 신의가 있는 교인은 그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예수님이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됨으로써,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베풀어주시는 복'을 미리 보장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잘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선하신 성리를 믿는 것이 결국 최상의 복을 받게 해 줍니다.

8월 이하 11월에 '8사울의 군사령관'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

길로와 아솔과 이스라엘과 애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니 10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사십 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11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철 년 육 개월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조용하게 살고 있을 동안,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 안에서는 일종의 무혈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에 이은 무신정치(武臣政治)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동자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왕권의 공백기를 틈타서 그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전 이스라엘 지파의 실권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집권이 시작된 지 이미 오 년이나 지난 후에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이스보셋은 겨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했고,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지낸 날 수는 "칠 년 육 개월"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스보셋이 왕위를 놓고 죽은 직후에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므로, 그 첫 5년 반 동안의 기

간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아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군사독재자로 군림하던 아브넬은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음 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임금으로 모시자고 아브넬에게 여러 차례 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자기 권력에 무언가 정통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아브넬은 마지못해 이스보셋을 형식적으로나마 왕으로 옹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두 해 동안에도 이스보셋은 그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고 아브넬이 일종의 설정처럼 여전히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7년 6개월 내내 헤브론에서 유다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열두 지파 전체의 왕권을 약속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머물러 두신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도 절대 다수의 지파들이 분명히 자기를 지지하고 있고 자기가 마땅히 완전히 장악해야 할 통일 왕권을 오직 아브넬이 불법적으로 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떤 성급한 행동이나 무력적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성리를 믿고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가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저 그 말씀대로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께서 말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3장 17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리"고 기록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 절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계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도 상승, 각 지파와 장로들의 전적인 후원, 그리고 아브넬의 군사적 세력의 약화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섭리하심으로써 다윗에게 모든 정권이 절로 넘어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결코 성급하게 굴지 않았고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나?'라고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조용히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다윗이 만약 스스로 칼을 뽑아들고 설쳤더라면 통일왕국의 전권을 얻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어 백성을의 마음을 도로 빼앗길 위험도 다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일을 그저 하나님께 전부 맡기고 기다리기만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 알아서 너무나 양복하게 처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잠자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험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일이 풀리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자하고 참고 기다리는' 신앙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급하게 설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기 백성을 위해 반드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해 그 최종 결과는 기다린 만큼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부상자를 직접 응급처치 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의 위험에 있는 한 그 부상자를 차에서 끌어내는 것조차 현장 주위에 있던 사람이라 놓아도록 합니다. 자기는 빨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

문에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부상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더욱 위급하게 만들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저 암뷸런스가 와서 응급구조대원이 전문적인 기술로써 그 부상자를 직접 구조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해도 어찌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 당시에 자기 네들을 급히 추격하고 있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뒤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출 14:13)고 그들을 진정시켰던 것입니다.

자신의 조급한 마음과 성급한 행동으로써 일을 망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고야 마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곧 최고최선의 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인 것을 꼭 기억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매사에 급한 성격은 무슨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로 어제없이 나타납니다.

'벼락부자'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overnight millionaire'입니다.

즉 미국의 백만장자는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하룻밤은 걸려야'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문자 그대로 '벼락 한 방 맞는 짧은 순간에 대박을 터뜨리는 극단적 초스피드 부자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미국은 그런 벼락부자가 생기기도 힘들고 하루아침에 졸딱 망하는 거지가 되기도 힘든 사회로서, 그저 착실히 그리고 꾸준히 일하면 다들 웬만큼 먹고 살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만족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한탕주의' 일색입니다. 광 투기를 하든지 다른 사람의 가게를 맡아먹든지 간에, 하여튼 단시일 내에 폐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실로 '고진감래'란 말은 그저 사자성 어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아무도 그런 식으로 복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벼룩은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바로 '기복신앙(祈福信仰)'입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기만 하면 즉시 뭔가 크게 한 건 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참된 복은 그런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받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신자들은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렵고, 손해처럼 보이고, 막연하게 여겨지더라도 장래의 더 크고 확실한 복을 위한 영적 수수(好手)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아니 가난한 때에도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아직 미안할 때부터 어찌하든지 교회 밖으로 나누어주는 선한 일에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평소부터 신앙의 형제자매들이나 동역자들과의 의리를 지킴으로써, 미래의 큰 환난을 당할 때에 재물보다 훨씬 더 든든하게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영적 보험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의 형편을 잘 아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때 최고최대최상의 복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어제의 '도망자'가 오늘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으며 그리고 내일은 '이스라엘 전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고 같은 교회 안의 성도끼리 신의를 지키는 가운데 전능자께서 그 여호와이로써 점점 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나중의 복'을 이 경향공동체를 중심으로 반드시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촉구합니다. 아멘.

소는 누가 키우나?

교회건강연구원장 이효상 목사 기고



교회건강연구원장
이효상 목사

'소는 누가 키우나?' 한 때 이런 말이 유행해 였다. 어떤 조직이든 티 안내하고 북하듯 일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세가 어느 정도되는 소위 대형교회 담임 목사급이면 스타성 기질이 다분하다. 그래서 언론사와 기자들은 각자 줄 세우기도 하고 특별 관심도 한다. 자신의 흥보나 일간 신문사의 기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붓는다. 그리고 사진 찍고 인터뷰하는 일과 광고로 도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대사회적 영향력 차원에서 언론

무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을 때, 사진 찍고, 밥먹고, 차 마시고 친목회하다 골든타임은 지나고 몇 년 후 은퇴를 한다면, 이렇게 '소'키우는 일에 별 관심없다면 '소'와 '양'은 주님이 알아서 다 키운다는 것인가?

조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실제로 하는 일은 없어 아벤로로 시간만 때우며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과, 반대로 실제로 일을 하는데 차마 민망스러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랑을 그리 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다. 조직에 꼭 필요한 인재는 후자이다. 그들이 없으면 조직은 결국 쇠퇴하고 망하는 길을 걷게 된다. 고로 조직자는 제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농촌의 농부들이 늘어가고 은퇴하고 있다. 과수원 과일은 누가 따나? 배추농사는? 녹발일은 누가 하나? 양어장 고기는 누가 키우나? 바다의 물고기는 누가 잡나? 소는 누가 키우나? 8월의 가마솥 짐통 더위에 정말 묻고 싶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아

꾼이 나와도 자신의 맘에 안든다면 바로 비토세력이 된다. 비토(veto)는 거부권이라는 단어로 복음적인 용어가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 용어이다. 이런 비토세력이 멀쩡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실족하게 만든다.

지도자의 한계가 있다면 상대가 나와 다른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소위 '개척파'보다는 '일류파'라는 의식은 해외와 출신 목회자들에게서 그런 점은 더 강하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하여는 무관심과 무지하다. 자신들이 쳐놓은 담과 울타리를 넘지 못한다. 한국교회를 섬기며 대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등 건강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기에 목회생태계를 회복하려고 앞장서면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는 죄목(?)으로 뒷담화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인재를 비토시킨다.

지난해 일본 여행 중 소학교 운동회에서 박 터트리기 경기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같으면 오자리를 던져서 저 박이 터

졌다"고 좋아한다. 그런데 일본식 경기는 박을 바구니로 만들어 그 박안에 오자미가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내 것도 저 박안에 들어가 그 박의 승리에 동참하는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감동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닮으면서도 깊이와 감동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관점과 감정이 전혀 다르다. 박을 꼭 터트려 속이 후련하고 직정이 풀리는 것인가?

'한국교회'라는 조직에 좋은 지도자 나오기가 쉽지 않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최소 10년 아니 2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지 않으면 지도자로 만들기 어렵다.

앞으로 교회와 역사와 미래를 읽는 지도자의 필수조건은 '연합할 줄 아는 것'이다. 한국교회에도 좋은 지도자가 많다. 그런데도 다들 개인기에 능해사인지 '연합'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힘들다. 그래도 가끔은 '연합'하기도 한다. 개인기 말고 동역자식이나 형제애를 가지고 팀

워크가 되는 자만이 미래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이들이 동력이다.

한국교회는 정치행위로서의 교회 연합은 있었지만 구체성을 띤 아젠다 설정에는 후진성을 보여 왔다. 한국교회 골든타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소는 누가 키우나?' 요즘 필자는 그런 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된다. 한국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발전에 기여할 일을 차분히 향기는 일들은 누구의 뜻인가? 한국교회 100년이 멀다면 향후 50년, 10년의 청사진을 가지고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를 실천할 브레인이 있는 한 것인가? 오늘 한국교회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비바람과 태풍 속에서도 10년 20년을 이성을 묵묵히 제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온 실무자들이 여럿 있다.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건 그들이 한국교회의 유무형의 자산이다. 그들의 열정과 시선이 더 높은 곳을 향하고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아극왕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져서 더 이상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체,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코트를 만들고, 그 코트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가 그때마다 이렇게 의쳤어요.
"아무렴, 여전히